

감사의 글

존경하는 학회 회원님, 발표 연사 및 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지침 시행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12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전면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제53차 추계학술대회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랜만에 진행된 오프라인 학술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의 열정을 가지신 전국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이번 학술대회는 대회 주제를 “새 정부의 진로교육 정책, 이렇게 되어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전면 대면으로 운영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 정부의 진로교육 정책 성과와 새 정부의 진로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및 ‘새 정부에서의 진로교육 정책 성공을 위한 제안’이라는 대영역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세부 주제발표 세션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53차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축사를 해주신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님,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님, 류장수 원장님을 대신하여 축사를 전달해주신 손유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님과 더불어 서면을 통해 축사를 전달해주신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님께도 학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 정부의 진로교육 정책 성과와 새 정부의 진로교육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을 해주신 정철영 고문님, ‘현 정부의 진로교육 성과와 새 정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의 패널로 참석해주신 이조복 과장님, 한상근 박사님, 이교배 원장님, 박종학 회장님, 이종승 부국장님, 주제발표의 좌장을 맡아주신 양종국 교수님, 김희수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김재수 수석교사님, 박정근 회장님, 이민욱 교수님, 임정훈 박사님, 정윤경 박사님, 이재열 박사님, 이효남 박사님 및 김정숙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OVID-19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정진철 사무국장님, 간사님을 비롯한 진로교육 및 유관 분야 관계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진로교육학회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최고의 학술단체로서 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 진로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 및 시의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한국진로교육학회가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13일

한국진로교육학회장 문 승 태 드림